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규철 레 오 952-836-7117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예레미야서 38:4-6.8-10	제2독서	히브레서 12:1-4	복음	루카 12:49-53
--------	------	----------------------	------	-------------	----	-------------

◎말씀 “불이신 하느님”

벌써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다가왔습니다. 삼복더위에 수고가 많으셨고, 그래도 더위가 여전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불은 하느님과 또는 그분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걱정하여도 뺏속에 가두어 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예레 20:9)라고 말했고, 또 집회서에 보면 “엘리아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나셨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집회 48:1)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은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런 불 같은 하느님 말씀이 세상에서 활활 불타오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불은 어두운 곳을 밝히고, 더러운 것을 태우며 차가운 것을 뜨겁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불이신 하느님의 말씀이 타 올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뜨거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불이 신약에서는 ‘성령’ 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위에 내려 앉았다.(사도 2:1~)”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불꽃 모양으로 사도들 위에 내려오셨고, 오늘날에도 각 사람들 위에 내려오시는데, 바로 사도는 이 불꽃을 잘 간직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십시오.” (1케살 5:20)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테메우스는 태양의 수레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일로 인해 그는 제우스신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았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지고 프로테메우스의 몸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의 손에는 인간에게 건네준 횃불이 그대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신화는 불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인데, 프로테메우스가 인간에게 필요한 불을 건네주었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영혼을 밝히는 불을 건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러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땃줄을 잘라내야 아기가 세상에 나오듯이 신앙인 역시 혈육이라는 땃줄을 잘라내야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 다른 복음서를 보면, 평화 대신 칼을 주러 왔다고 하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 10:34~)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사랑한다.” 는 것은 앞세운다는 뜻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좀 더 앞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해체해 나가는 분열의 과정과 또 자기 주변을 정리해 나가는 마음의 칼을 잘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밝혀 참된 불이신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나아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로움을 먼저 구한다면 나머지는 곁들여 받게 되는데, 다시 한 번 오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한껏 불타오르길 다짐해 봅시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루카 24:32)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8월 16일(화)	연중 제20주간 화요일	저녁7시30분	주일헌금 교 무 금	\$ 1,067.00 \$ 2,640.00
8월 17일(수)	연중 제20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 물 방 사회복지	\$ 160.00 \$ 225.00
8월 18일(목)	연중 제20주간 목요일	저녁7시30분	성소후원 미사예물	\$ 270.00 \$ 1,325.00
8월 19일(금)	연중 제20주간 금요일	저녁7시30분		
8월 20일(토)	성 베르나르도 아바스 학자 기념일	저녁7시30분	합 계	\$ 5,687.00
8월 21일(일)	연중 제21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3명 성인: 131명
교무금 봉헌자	정대환(7-12)김상범(1-12)김규철.윤재경.금외주.성영진.김상돈.김평옥.남필레.박용호.조용주. 박선경.조영숙(8월)			

●신앙생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성모 승천 대축일"

한국교회는 성모승천대축일을 모든주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과 함께 의무 축일로 지낸다.

성모 승천 대축일은 원죄없이 잉태되시고 평생 동정 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상생활을 마친후 하늘에 올림을 받으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마리아가 하늘에 올림을 받은 것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리아의 승천과 구원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신의부활'과 '영원한삶'에 대해 희망한다.

성모 승천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4세기에 살라미스의 주교 에피파니오가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지나친 성모 신심을 우려하여 하느님 흠숭과 성모 공경을 구별하였다. 성모 승천 교의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6세기 투르의 그레고리오에 의해서이고, 8세기 들어 신학적 근거를 갖고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후 여러 신학자들과 교황 베네딕토 14세에 의해 성모 승천 교의가 재확인 되었으며, 이 교의를 공식화 하자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교황비오 12세는 1950년11월1일에 교황령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MunificentissimusDeus)을 통해 성모 승천 교리를 믿을교리로 반포하였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는 "원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 시어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는 지상생활의 여정을 마치시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시고, 주님께 천지의 모후로 들어 높이 지시어, 군주들의 주님이시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과 더욱 완전히 동화되셨다."(교회헌장59항)고 성모 승천 교리를 재천명하였다.

교회는 5세기초 예루살렘에서 8월15일을 '하느님의 어머니' 축일로 지내며 성모 승천을 공식적으로 기념하였다. 6세기경 '성모 안식 축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7세기에 서방교회로 전해져 성모를 공경하는 축일로 지내게 되었다. 9세기 교황 레오 4세는 이 축일을 팔부 축일로 거행하도록 하였으며, 교황 니콜라오 1세는 주님 부활 대축일이나 주님 성탄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 등과 같이 대축일로 기념하도록 하였다. 16세기의<로마성무일도>에 성모 승천 팔부 축일을 삽입하였는데, 현재까지 이 축일은 마리아 축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로서 교회 전례력상 대축일이다. 1970년 미사 경본 개정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은 전야 미사가 인정되는 유일한 마리아 축일이 되었고, 한국 교회는 이날을 의무축일로 지낸다.

성모 승천 대축일 전야미사의 본기도는 성모의 육체가 하늘에 올림을 받았음을 강조한다. 하늘에 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 차원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성모마리아의 완전함과 복됨, 동정의 몸과 흠없는 영혼이 누리시는 영광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한 영광은 우리들도 참여하게 될 영광이며, 아울러 성모 마리아는 천상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재한다는 '성인의 통공' 신앙도 포함되어있다. 또한 대축일 감사송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마리아께서는 / 완성될 주님 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으로서 / 이세상 나그넷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에는 이 축일의 신비가 잘 드러난다. 교회의 모상인 마리아가 하늘에 올림을 받은 신비를 기념하면서 교회는 마리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업적을 보고 희망을 갖는다. 따라서 성모 승천 대축일은 구원의 열매로서의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는 축일이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김정필 라파엘, 윤태욱 안나, 원정은 카타리나 백정심 막달레나, 기은희 마리아, 김나미 로사 김옥륜 세실리아, 엄안드레아, 김숙자 수산나 안옥자 엘리사벳, 이규청 제노비아, 엄모니카 박모란 글라라, 이상일 마리아, 배미성 오틸리아 남필레 마리아, 고공자 벨라렛다, 김화진 요안나 신용경 그레고리오, 김초지 마리아
-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안윤석	생	마이클 메이오 건강회복	최선옥 제노베파
연	클래런스 링고 영혼	최재진 모니카	생	남성 제15차 꾸르실료 본당 참가자들	본당 꾸르실리스따
연	윤이화 마리아 영혼	백정심 막달레나	생	김채훈 어거스틴, 김정애 헬레나 영육건강	주동숙 모니카
연	김숙연 타르실라 영혼	이환 토마스			
연	이봉기 요아킴 영혼	임정남 실비아	생	(생일) 김정애 헬레나 영육건강	셋별Pr.
연	임채운 이나시오, 임채운 빅토리노 영혼	임정남 실비아	생	이정호 스테파노, 성이슬 훈인축하	이환 토마스
연	(기일) 최창희 안나 영혼	이베드로 벨라렛다	생	(생일) 이상일 마리아 영육건강	이숙희 벨라렛다
연	양성근 파스칼 영혼	양베로니카	생	(생일) 이영래 루치아, 박모란 글라라. 이서향 미카엘라 영육건강	소화데레사회
연	홍이나시오 영혼	홍세라피나. 안드레아			
연	최창희 안나, 이봉기 요아킴 김숙연 타르실라. 이봉훈베드로 영혼	이순자 요안나	생	김은영 프란체스카 빠른 건강회복	아빌라데레사회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일시: 15일(월) 저녁7시30분. 성당
의무대축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본당 올뜨레아

일시: 17일(수) 저녁8시 엘리사벳방
개인별 성체조배: 저녁7시30분-8시
참석대상: 본당 꾸르실리스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3. 서북미 한인 꼬미시움 회합

일시: 21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참석대상: 서북미 6개 꾸리아 간부 (Zoom) 및
우리 본당 각 뵈레시디움 4간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 서중부 남성 제15차 꾸르실료 참가자를 위한

신부님의 파견 축복(아가페) 안내

일시: 23일(화) 저녁미사후 엘리사벳방
참가자: 양경민 안드레아, 안성수 예로니모

본당의 모든 꾸르실리스따들은 파견 축복식에
참석하여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라며,

꾸르실료 교육기간(25일~28일) 동안 참가자들을
위하여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 26일(금) 저녁8시. 성당
저녁7시(찬미) 저녁7시30분(목주기도)
저녁8시(미사) 저녁8시30분(찬미)
저녁8시45분(성시간 및 안수)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6. 본당 사목회의

일시: 28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부장급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장급이 참석.
사목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7. 모임 및 활동

6구역 모임: 14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사회복지부: 21일(일) 노라플레이스 음식봉사

8.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1,325 (본당신부님 미사예물)

<< 주일학교 >>

방학기간 중에도 어린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가정 봉성체 안내

일시: 매월 마지막 목요일 신청: 신부님

화답송



전례봉사	연중 제20주일(8월14일)	연중 제21주일(8월21일)	연중 제22주일(8월28일)	연중 제23주일(9월4일)
미사해설	최금주 요안나	김은영 폴리나	김진영 마르타	최금주 요안나
복사	최진호 다니엘	김병수 마리아	장현철 엘리야	장현철 엘리야
헌금위원	셋별Pr.	천상의모후Pr.	셋별Pr.	천상의모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 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Bradshaw)
916-361-0433 (Elk Grove)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전주곰탕 & BBQ

9345 La Rivera Dr.
Sacramento, CA 95826
(구 아시아마켓)
임복순(골롬바)
916-382-9699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서은미 부동산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

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Allsafe Lock & Key2

9336 #B La Riviera Dr.
Sacramento, CA 95826
Sam Song
279-786-6186
allsafelocknkey2@gmail.com
www.allsafelockandkey.com

장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청국장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Aeyon Lee RPh
(이애연 플로렌시아)
개인면담(사전예약필요)
교중미사후 친교실(격주)
916-276-1834
aeyon7511@gmail.com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안내

입금은행: Wells Fargo
은행주소: 9500 Micron Ave Suite 130
예금주: Pastor of St Jeong-Hae Elizabeth
계좌번호(Account#): 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